

제十一장 두증인을대적함

성전과경배하는자를척량함

「또 내게 집행이가튼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러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가운데 경배하는자를 척량하되 성전밖마당은 척량하지말고 그남두라 이것을 받서 이방사람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기록한성을 마흔두달동안 편답하리라」

본장의 내용은 전장의 계속이니 곳 전장하단에 말한 세천사의 기별에 관하여 그 성전의 어색함을 증거하는 것이다。 대저 세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성전과 그 가운데 경배하는자에 관계되는 기별인바 이 성전은 세상의 그림자되는 성전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실상의 성전을 가리침이며 그 가운데 경배하는자는 세상의 참교회를 표상한 것이다。 그러면 성전과 제단과 그 가운데서 경배하는자들을 척량하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경배하는자들을 척량한다는 것은 그 키를 재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 품성과 그 행실을 헤아리는 것이니 이는 룰법 곳 하나님을 열가지 계명으로만 할수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천사가 『요한』에게 준 「지팡이가튼 갈대」는 「모든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의 주신 열가지 계명을 의미한 것으로 생각할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열가지 계명이 세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교회에게 준바된것을 알수있는 것이다。 과연 하나님을 경배하

는자들은 이 계명으로써 천량함을 당할 것이다.

「성전 가운데서 경배하는 자」에 대하여는 우에 설명한바와 같거니와 「성전을 천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릇 무엇이든지 추량을 하려면 그 물건에 대하여 주목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니 「이러나서 성전을 천량하라」는 말 가운데는 교회다려서 전 곳 성소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보라는 명령이 포함된 것으로 알 것이다. 그러면 교회에게 준 그 갈대로 어찌케 이일을 행할 것인가? 오직 심계명만으로는 이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이 기별의 전부를 자세히 연구해보면 하늘성소의 조사는 하나님의 심계명과 여러 관계되는 그리스도의 봉사로 말미암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천량하는 지평이 가름 갈대는 심계명뿐 아니라 이 시대에 적당한 큰 진리를 포함한 특별한 기별로 오늘날 교회에게 준바된 것임을 단정할 수 있다. 우리가 이로써 하늘 성소에 관한 빛과 진리를 볼 수 있는 바 곳 하늘성전의 봉사와 대제사장 예수의 직분과 지위를 알 수 있고 모든 믿는자들의 품성과 행실을 심계명으로 재어볼 수 있는 것이다.

「성전 빛마당은 천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성전 내부에서 행하는 봉사에 대하여 주목중인 주 빛마당에 대하여는 생각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마당은 이방 사람에게 제공된 것으로 이 세상을 가리키는 바이다. 구약 시대에 행하는 성전례식에 의지하면 빛마당은 희생제물을 잡는 곳이었는데 하늘성전의 참회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참마당이 되는 『유대』 『갈라리』 산우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방 사람에게 소개되었는데 『오한』은 이방사람의 대배교상태 곳 법왕권의 전성기간인 四十二개월간에

거룩한성 하나님의 교회가 밭힘을 밟는 것을 보고 또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형편에 대하여 주목하게 되었다. 우리는 본장의 말씀으로 과거의 사실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압해 이를 련락적 사실에 대하여도 주의를 이르게 되는 것이다.

암혹시대의하나님의두증인

「내가 나의 두 증거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一천二백六十일을 외옷을 입고 예언하리라 이는 이 세상의 주압해 첫는 두 감람나무요 두 축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저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하는 자는 이와가리 죽어야 하리라 저희는 권세가 있어 능히 하늘을 다 다 그 예언을 하는 날에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가 있어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또 아모때든지 저희 마음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씨를 치리도다」

一천二백六十일은 二절에 말한 마흔두달과 가름 기간이니 마흔두달을 날수로 계산하면 一천二백六十일이 되는 것이다. 이 기간은 법왕권이 성경과 그 진리를 가리우고 압박하는 시대를 가리칭인데 이 시대동안에 두 증거하는 자가 외옷을 입고 예언하였다. 본대 외옷을 입는다는 것은 통회하고 슬피하는 것을 표하는 것인바 하나님께서 이 암혹시대에 오이러 두 증거하는 자에게 권세를 주어 예언하게 한 것이다. 그러면 두 증거하는 자는 무엇을 가리칭 것인가? 四절에 보면 「이는 이 세상에 첫는 두 감람나무요 두 축대라」 하였다. 그리고 세가리아 四장에 이와 씨 가름 기록이 있는바 「등대 좌우에 두 감

「랍나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상하여 말하였다. 또한 시편에 나르기를 「주의 말씀이 밝히 열린즉 비출 내시고」(시百十九〇百三十)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며 내 길에 비치되나이다」(시百十九〇百五) 하였고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것이라」(요五〇卅九) 하였다. 그러므로 두 감람나무요 두 축대인 두 증거하는자는 구약과 신약 두 성경을 가리친것이 분명하다. 대개 사도시대까지지는 구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으나 사도후로부터는 신약이 그리스도의 하신 행적과 그가 누구이신것을 분명히 가리켰다. 그런데 이 구신약성경은 법왕권의 전성시대이든 천二백六十일 곳 천二백六十年동안에 법왕권의 압박을 바다 뵈움을 입고 아조 슬픈 가운데서 지내었나니 천주교회가 성경말씀을 『라틴』말로만 기록하고 일반이 잘아는 보통 용어로는 번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만치못하였으며 더욱이 一 二二九년에 이르러서는 천주교회가 일반 교인의 성경가지는것을 금하고 허가업시 성경을 보는자는 죽을죄로 다스렸다. 그러므로 구신약 성경은 과연 뵈움을 입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는자」 곳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거나 혹은 더럽히고 또한 그 증거하는 말을 막아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씀에서 쏘나게 하는자는 그 입에서 불이 나서 소멸할것이다. 「누구든지 생평책에 적히지못한자는 불구렁렁이에 던졌더라」(묵二十〇十五) 「이책에 예언한 말씀을 듣는자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 말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여러 재앙으로 그에게 더하실려이오」(묵廿二〇十八)

「볼지어다 그날이 이르리니 형세는 쓰거운 풀무와 같고 무릇 교만한자와 행악하는자는 초개 가라서 그 이르는날이 다 사로아 썩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말四〇一) 또 두 증거하는자의 권세에 대하여 말하기를 「하늘을 다다 비오지 못하게 하고 불을 번하여 피되게 하고 또 아모때든지 저희 마음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썩를 처리로다」 하였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옛날 『엘리아』는 하늘을 다다 三년반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는 물이 번하여 피가 되게 하였는바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것이다. 또한 「저희 마음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썩를 처리라」고 하였는바 사실상 성경에 예언한 여러가지 재앙은 그대로 성취되고야 말것이니 장차 이를 날콰재앙가튼것이 다 그러한것이다.

볼란서현면과 두주인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때에 무저항으로부터 올라오는 증생이 저희로 더부러 썩음을 이르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성거리에 잇으리니 그 성은 신성한 말로하면 『소돔』과 『애굽』이라 곳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이니라 여러 백성과 족속과 지방과 나라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 구경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세상에 거하는 사람을 피롭게 한고로 세상에 거하는자가 그것을 본즉 즐겁고 깃뵈하여 서로 레 불을 보내더라 三일반후에 하나님께서 생기가 저희속에 드러가매 저희가 발로

곳 이로서니 그 구경하는 사람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저희가 드르매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있어 가르대 이르러 올라오라하니 저희가 곳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저희 원수도 구경하는지라 그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十분의一이 무너지며 지진에 죽은사람이 七천명이오 그 남은자들이 다 두려워 영화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돌리더라 불지어다 들재하는 지나가고 셋재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두 증거하는자가 뵈옵을 입고 증거하기를 마칠새 (일문성경에는「마치라할새」로 번역 되었음)에 무저항으로부터 증생이 올라왔다. 그 마칠새는 다시 말하면 법왕권의 핏방하는 기간이 거의 마칠새 아직 예정한 기간이 이르기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廿四 廿二참고) 그때에 한 증생이 올라왔는바 증생은 예언에는 나라나 권세를 대표한다. (단 七〇十七, 廿三참고) 그러면 그 핏방하는 기간은 언제 마치었으며 그 기간이 마칠새에 어찌한 나라이 이러나서 성경으로 더부러 싸움을 이르키는가? 력사에 의지하건대 법왕권이 확실히 성립되기는 기원五三八年인데 그때로부터 一천二백六十일 곳 一천二백六十年을 지낸후는 一七九八년에 당한다. 그런고로 一七九八년이 거의 이르렀을때 곳 一七九三年에 불란서에 혁명이 이러나서 종교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무신론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 증생이 싸움을 이르켜 이기고 「저희」 곳 성경을 죽일터인데 그 시체가 큰 성거리 신령한말로 『소동』과 『애굽』에 잇게다고 하였다. 『애굽』은 무신론의 사상이 총만한 불란서를 표상하기에 적당하니 일주 『바로』왕이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듯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하보내리오 내가 여호와를 아지도 못

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노하보내지도 아니하리라」 (출五〇二) 하였다. 과연 불란서는 옛날 『애굽』과 가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를 아지못한다 한 것이다. 또한 불란서는 신령적 『소동』으로 대표되었으니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옛날 『소동』은 음란한 곳 이었다. 그와가리 불란서도 혁명당시에 간음을 법령으로 공인하게까지 남녀간의 도덕이 아조 락락하였다. 그리고 신령적으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도 불란서니 불란서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단체인 『휴게노』(Huguenots) 신도들을 학살하기를 음모하고 성 『바들트매』 제일밤에 피리성에서 七만명의 신도를 살륙하였다. 이와가리 경건한 신도들이 무참한 죽음을 당한것은 신령상으로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것이나 다름없는것이다. 더욱이 불란서에서 는 얼마동안 「예수를 업시하자」는 표어가 만히 유행하였으니 불란서를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으로 말한 것은 적당한 말이라 할것이다. 불란서의 혁명정부는 一八九三年에 법령을 내려 성경말행하는것을 금하고 그것

을 압수하야다가 불사로아버렸으며 성경상에 근거를 둔 七일一주제도를 폐하고 十日一주의 새로운 력법을 만드려 내었다. 이리하야 불란서는 여귀 예언한 성경말씀을 온전히 성취한것이다.



밤일 제 『바로돌마』 성한 삼학 울도 신 『노게유』

군을 다스리는 큰성이라」 하였으니 성은 곳 음녀인 법왕교 『로마』를 가리침이었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十字분의 이라 함은 『로마』로부터 분열된 열나라 가운데 하나를 가리침



란 명 령 대 의 서 란 불

가 조직되게 되었다. 즉 一八〇四년에 문저 영국성서공회
회가 조직되고 一八一六년에는 미국성서공회가 창립되었
다. 그리하여 이 성서공회들로 말미암아 다수한 성경
이 전세계에 반포되게 된 것이다. 오늘날은 성경이 九백
여방언으로 번역출판되어 전세계 각나라와 각민족에게 여
러 백만부씩 전파된다. 이는 실로 커적적 사실이 아닌
가?
또한 十三절에는 「큰 지진이 나서 성十字분의 이 무너
지며 지진에 죽은사람이 七천명이라」 하였다. 여기 말한
성은 무엇이며 지진은 사실상의 지진을 가리칭인가? 무
시 十七장 十八절에 보면 「나 본파 계집은 세상에 여러님

은 눈으로 주목하고 성경의 권위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런데 十二절의 말씀을 보면 그 두 증인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였

「여러 백성과 족속과 지방과 나라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동안 구경하며 무
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한것은 불란서 이외의 여러 나라이 두 증거하는자 곳
성경이 여러가지 모욕당하는것을 보고 방관하는 태도를 말한것이니 과연 불란서혁명당
시에 여러나라에서는 불란서가 그와가리 무신론자적 참학한 행동을 하는것을 보고도 내
바려두어 성경이 三일만 곳 三년반동안 죽은상태로 있게 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장사
지내지못하였으니 아조 근절치못한 표시이다. 불란서혁명으로 말미암은 종교박멸의 심
한운동은 도리어 각처에 잇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더욱 독실하
게하고 성경에 대한 애착심을 더욱 강렬케하여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하였다.
十절에는 두 증거하는자를 또한 두 선지자라고도 하였으니 이로써 구신약 성경을 가
리친것이 더욱 확실하다. 그런데 성경을 슬허하든자 성경으로 말미암아 피로움을 받
든자들은 성경이 죽게 되는것을 보고 아조 줄거워하야 서로 레물을 보내었나니 실로
당시 무신론자들의 깃버하고 경축한것은 여간이 아니었었다. 그러나 그후로 사회는 아
조 혼란한 상태에 빠지고 도덕과 질서가 업는 공포시대(恐怖時代)를 나라내게 되었
다. 그러므로 불란서 정부는 종교를 부인하고 성경을 금지한지 三년후에 다시 그 금
지령을 해제할 문제를 의회에 제출하야 六개월후에 이 의안은 의의업시 가결되어 일
반이 다시 성경을 읽을수 있게 되었다니 이리하여 성경은 一七九三년十一月부터 一七
九七년 六월까지 만 三개년반 성경상 시간으로 三일만을 죽은 상태로 지내다가 다시
생기를 회복하야 발로 이리서게 되었다. 이에 이 신기한 소생에 대하여 일반은 놀라

이니 곳 불란서를 의미한 것이다. 그러면 불란서에 무슨 지진이 있어 七천명 사람이 죽었는가? 이 지진도 역시 一七八九년으로 一七九八년까지 있던 불란서 대혁명을 뜻한 것으로 이 혁명에 불란서의 귀족들은 전부 몰락되었다. 그런데 불란서의 기록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당시에 작위와 존칭을 체할만한 사람이 七천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불란서로 말하면 혁명사상이 이러나는 때부터 종교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욕을 툴일이 심히 많았으나 만흔사람은 혁명당시의 처참한 유흥, 학살의 광경을 목도하였으므로 그 마음이 돌변하여 혁명후에는 도리어 종교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났나니 과연「그 남은자들이 다 두려워하여 성화를 하기에 계신 하나님께 돌리었다」이제 첫째화와 둘째화는 다 지나가고 셋째화가 막 이르게 되었다. 「셋째화가 속히 이르지는 못하다」하는 그 말을 자세히 상고하자면 둘째화가 지나갔으나 셋째화가 나아 시작되었는 뜻은 알수있다. 둘째화는 토이기가 독립권을 일흔 一八四〇년八月十一일에 마치었는바 한 四년간의 사이를 두고 一八四四년에 이르러 셋째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닐곱재라발 (셋재화 — 세상쓰레잇을대사변)

「닐곱재 천사가 라발을 불매 하늘에서 큰소리들이 있어 가르대 세상나라이 우리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이 되어 저가 세세에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압헤 제 자리에 안진 二十四장으로 업드려 일들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르대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어 친히 큰권능을 잡

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하심이 세상에 립하여 죽은자를 심판하실때요 종 선지자들과 여러 성도와 또 무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공경하는자에게 상주시실때요 또 세상을 망하게 하는자들을 멸망시키실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잇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지라 성전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되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잇더라」

十장七절에 이미 말씀하기를「닐곱재 천사가 라발을 불게 될때에 하나님의 오묘함이 반드시 이루리라」하였다. 그러므로 하늘에 잇는자들은 그 말씀이 참된줄을 아는고로 아직 그 오묘함이 다 이루지는 아니하였으되 라발을기를 시작할때 큰 소리를 내어 찬송하기를「세상나라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이 되어 저가 세세에 왕노릇하시리로다」하였다. 과연 하나님의 오묘할 곳 복음의 사업은 이 닐곱재라발 부는 동안에 다 마치게 될것이오 또한 이것이 완성되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서 세세에 왕이 되실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잇는 二十四장과와 령물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일을 인하여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것이다. 그리고 十八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대에 령방이 분노할것이오 주의 진노하심이 세상에 립하여 심판으로 세상을 마칠것인데 선한자에게는 상을 베풀고 악한자에게는 멸망을 나리실것이다. 十九세기 말엽으로 부터 二十세기에 드리와서는 세계의 령국은 진실로 이상한 감정을 가지고 군비의 경쟁을 일삼아 왔다. 세계의 교동이 열림을 썩라 령도적야심, 무역시장의 경쟁등은 령국 사이에 심한 시끄심을 격발하였고 일변 과학적부끄의 발달은 피차간의 의구심(疑懼心)

과 적개심(敵愾心)을 이르키어 마침내는 저 세계대전란의 두려운 결과를 만든 것이다.



가자신의보혈과심계명주조사판의표준이됨

의 상을 받고 주의 다려가시는바 되어 하늘에서 천년동안 악한자의 심판을 행할것이

오 세상을 망하게 하는 불의한자는 천년후에 불구렁텅이에서 마귀로 더부러 온전히 소멸될것이다.

본장 마지막절인 十九절은 본장 맨 첫재절과 대조되는 기록으로 마치었다. 곧 一절에 잇는 성전괴사는 十九절에서 온전히 결론지었다. 하늘성전은 세상에 잇는 성전의 본체 인바 지성소의 법궤안에는 하나님을 열가지 계명이 드리잇는것이다. 우리가 이미 연구한 바와 가리 一八四四년으로부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지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사 하늘성전을 정결케하는 일을 행하시느바 이는 십계명에 비치어 모든 잇는자들의 신행을 조사하시는 조사심판이다. 이일이 닐굽재 라발부는동안에 잇게으므로 여기에 성전내부가 나타나 보이게 된것이다. 그리고 이 조사심판이 잇는동시에 세상에 십계명에 대한 관념을 각 사람에게 너혀주는 마지막 괴별이 전파될것이니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일반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괴별이 전파될것이다. 그러나 조사심판이 하늘에서 마치는 동시에 세상에 잇는 이 마지막괴별도 마쳐질것이오 그때에 「불의한자는 그대로 불의하



하나님의심계명보관법제

고 기록한자는 그대로 기록할 것이다」또한 큰 재앙이 나리대 하늘에 예비하였든 번개와 음성과 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이 세상에 나릴 것이다。 이일은 진실로 두려운일이요 처참한 일이다。 이일이 비록 우리 압해 가짜이 박두하기는 하였으며 아직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라고 자기에게로 도라오는자를 고대하시고 계시다。 지금은 오이러 은혜주시실때요 구원하실 날이로다。 우리가 이 마지막의 두려운 재앙을 면하려할진대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전심으로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십계명을 온전히 준행하여 성신의 인치심이 우리의 이마에 분명히 나타나서 하늘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흐려바리는바 되지안여야 할것이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시험과 재앙가운데서 견져주시기를 밝히 보증하여 주시었다。